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하느님 한 번 더 믿어봐요.”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그게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포도 농사를 짓는 김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월 어느 날, 그분 포도밭에서 포도 봉지를 함께 씌우면서 올해 농사가 어떨 것 같으냐고 여쭙봤습니다. ‘아마 풍년이 들 것 같다.’는 대답에 제가 다시 “풍년 들면 포도 팔아서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여쭙봤습니다. 일꾼들 품삯도 줘야 하고, 밀린 농약 값, 봉지 값, 포장용 박스 값, 기름 값도 값아야 하고, 저온 저장고 짓느라고 은행에서 빌린 빚도 값아야 하고, 등등 이것 저것 써야 할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좀 남으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컴퓨터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씨의 예상대로 그 해 포도 농사는 대풍이었습니다. 백 배의 열매를 맺었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백 배의 열매를 맺는 바람에 포도 값이 퐁값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 컴퓨터는 고사하고, 은행 빚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걷이가 끝나고 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 잡아냈다는 연락을 받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여쭙봤습니다. “내년에도 포

도 농사 계속 지을 건가요?” 의기소침해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에 희망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올해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또 희망을 걸어봐야지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하느님 한 번 더 믿어봐야지요.” 올해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또 희망을 갖고 일어서려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실망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곤 합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려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 확장을 애써 꾀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성공적으로 펼치지는 못하셨습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은 장벽들에 힘겨워 하곤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셨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마저도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도, 한 숯밥 먹고 한 지붕 아래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마저도 실패를 인정하고 심한 회의를 느낄 때에도 그분만은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오늘 우리가 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더욱 큰 희망을 역설하십니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 밭에서 씨 뿌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밭에 길이 나 있고 온통 돌밭인데다 잡초마저 무성합니다. 이런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지만, 이를 알면서도 저 농부는 기대에 부풀어 씨앗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뜻밖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큰 결실을 맺어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소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지금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큰 결실을 맺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가르치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르치십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좋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길 가르치십니다. 그 안에서 희망을 배우고, 그런 희망으로 인해 기쁨 중에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오늘도 성체를 모시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망동 본당 우병현 마태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이며 농민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풀이해 주십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에 따라 결실이 다르듯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따라 말씀이 맺는 열매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본기도

†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5장 10절-11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비가 땅을 적시어 싹이 돋아나게 하듯,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하는 바를 이룬다고 전합니다.

묵 상 :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자신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좋은 땅인지 질문해 봅시다.

화답송 :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제2독서 : 로마서 8장 18절-2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묵 상 : 당신의 피조물이 하느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희망으로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내는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 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3장 1절-23절

강 론 : “하느님 한 번 더 믿어봐야지요.”(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178번 ‘성체 앞에’

영성체 후 묵상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묵>

하늘나라에 대한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죽이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묵>

그리스도인은 볼 수 있는 눈과
들 수 있는 귀를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으며
하늘나라의 신비를 마음 안에 간직합시다.

<침묵>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고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백배의 열매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 공소사목 성금

| | | | |
|------|----------|------|----------|
| 구담성당 | 100,000원 | 서준자님 | 100,000원 |
| 도평공소 | 100,000원 | 이동택님 | 50,000원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2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제22회 농민주일 기념 행사

- 일시 : 7월 16일(주일) 10:00 - 16:00
- 장소 : 풍양농촌선교본당
- 준비물 : 미사준비, 모자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7월 24일(월) 20:30
- 장소 : 예천 본당
- 강사 : 김상현 프란치스코(청주교구)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참가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문의 :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8일(화) 14:00 - 9일(수) 14:00
- 장소 : 한성연수원
- 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남자 초등부(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 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치유세미나

- 일시 : 8월 18일(금) 15:00 - 20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강사 : 이보경 데레사 외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 10일까지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종신서원식

- 일시 : 8월 21일(월) 11:00
- 장소 : 송현동 본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주교

■ 안동교구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썬미숫가루(600g, 1만원, 1kg 1만6천원)
낙동강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썬
담당자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주문판매)
전국 제일 고춧생산지 영양 고추 100% 엄선 가공
담당자 : 오 수산나 010-3813-4405

■ 아씨시수녀들과 함께 수도생활체험 피정

- 일시 : 8월 13일(주일) - 15일(화)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3만원)
- 문의 : 010-5313-0241 전베로니카 수녀

생태적 회개와 친교의 성사를 통해 우리 농촌을 되살립시다!

오늘 농민주일을 맞이하여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하느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농촌을 살리고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이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생태적 회개를 요구하시고 피조물과의 친교를 강조하시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식량과 자원의 부족, 경제 불안의 지속 등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오늘날 인류와 지구생태계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조화롭게 빚어주신 자연 세계를 우리 인간의 무책임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남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느님께서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으리라”(창세 8,22) 말씀하시고, 사람이 농사지어 땅에서 양식을 얻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농사법을 농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이사 28, 26-29 참조). 그래서 농민의 땀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숭고한 일이며, 하느님께서 펼치신 드넓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모든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풍요로운 초대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추적만을 위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농촌의 빈곤, 토지분배의 불균형, 영세농업의 가속화, 공동체적인 가족농의 붕괴, 토양의 피폐 등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정책으로 농촌공동체는 해체되고, 더 이상 지을 농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의 해외의존과 유전자변형식품(GMO)을 비롯한 각종 유해 식품의 범람으로 우리의 밥상 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후인 1966년 ‘가톨릭농민회’를 창립하여 생명존중과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농업·농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명공동체운동’

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 UR) 협상의 타결로 농촌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자, 1994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듬해인 1995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제정하여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교구별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생명농산물 직매장 운영과 연간 100여회 이상의 다양한 도농교류행사 등을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 보존과 도·농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우리들의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생태적 회개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밥상을 살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충분한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없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삶도 함께 고려하여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는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친교의 성사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보편적 연대와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는 물론 지역의 가난한 이들의 밥상까지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제 활동을 공유하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 운동, 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남북농업교류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노력과 활동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본당과 교구에서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생태사도직단체’의 결성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바입니다.

지구라는 별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생태적 회개의 삶을 실천하며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제22회 농민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살림터 이야기

향기 나는 사람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향기 좋아하세요?

여름 향기는 어떠세요?

어딘지 모를 애뜻함이 묻어나지 않으세요?

어릴 적 말던 모깃불 향기엔 저마다의 추억이 배어있을 것 같습니다.

모깃불 옆 살평상에 누운 딸에게 부채질을 해 주던

젊고 예뻐던 엄마의 향기는 참으로 싱그러웠습니다.

불이 뽕송뽕송한 스무 살 적,

남학생들과 함께 간 피서지에서

터치 불이 끝나면 시원하게 먹으려고

바닷가에 묻어 두었다 잃어버린

잘 익은 수박 향기를 잊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 화진포엔

아직도 그 향기 스무 살 나이처럼 달콤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유난히 칠월에 피는 칙꽃 향기를 편애합니다.

발코니 귀퉁이에 내놓은 그네에 앉아

저무는 들판을 그윽이 바라보고 있을 때

바람결에 묻어오는 칙꽃 향기는 감미로운 선물입니다.

그 속엔 직접 캔 칙을 달여 딸에게 권해주던

지금은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온화한 향기도 함께합니다.

향기, 어찌면 냄새엔

사람이 들어 있어 더 오래 잊히지 않나 봅니다.

저는 어떤 향기를 품은 사람일까

돌아보는 칠월입니다.